

한국신용정보원 업무보고

2026. 1. 12.



한국신용정보원
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

금융소비자와 기업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되도록, 충실히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.

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

1. 기술금융 평가모형 고도화 및 공급('26.3분기)

- 은행 등이 성장유망기업·기술기업 발굴·평가에 이용하도록 기술력 성장모형 플랫폼 구축

2. 혁신성장 품목 및 기업 추천 서비스 고도화('26.2분기)

-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부합하는 품목별(240개) 기업 발굴 및 기업별 품목 추천 서비스 제공

3. 금융배출량 DB 구축 ('26.2분기)

- 금융배출량 자산군*별 금융배출량 정확도 향상 지원

* (7대 자산) 상장주식 및 회사채권,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, PF, 상업용 부동산, 모기지론, 자동차대출, 국채

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포용금융

1. 소상공인·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(SDB)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(SCB) 개발('26.2분기)

- 데이터 수집·제공 및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

<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(안)>



2.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 내비게이터 개발('26.4분기)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매출 및 대출상황에 따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원

3.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추진('26.2분기)

- 대안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공공정보 DB 확보 추진(전담조직 신설)

데이터 공급망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금융분야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.

금융소비자 권리 향상

1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활성화 지원('26.2분기)

-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One-Stop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행

2 서민·취약계층의 권리 향상 ('26.1분기)

-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등

3 애플리케이션 계좌 공유 시스템 구축('26.2월~)

-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·시행('26.2월)에 따른 금융기관 업무 지원을 위한 생계비 계좌 개설정보 공유시스템 구축

금융분야 AI 활성화

1 「AI 러닝 플랫폼」 구축·운영 ('26.1.5~)

- 대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
예) AI Play DB(AI 교육·실습이 가능한 데이터셋) 및 활용 안내서 제공 등

2 「금융권 AI 플랫폼」 구축·운영 ('25.12월~)

-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AI개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(모델, 앱, 데이터)를 발굴·선별하여 제공

3 합성데이터 개발·제공('26.3분기)

- 합성데이터 생성·평가방법 고도화 및 시나리오별 합성데이터 개발·제공

4 맞춤형 AI 모델 개발·제공('26.4분기)

- 기술동향보고서 작성 에이전트, 가명처리 자동화 솔루션 등

1. 채권자변동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하였습니다.

[배경] • '25. 6월, 국회 토론회에서 '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'의 금융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 필요성 제기

[조치사항]

<전용 홈페이지 신설>



인증절차 간소화(휴대폰 인증)



불법추심 체크리스트(자가진단용)



- * 일평균 이용자수
 - (개편전/'25.9월) 1,050건
 - (개편후/'25.12월) 5,450건

2. 금융거래 안심차단 인프라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소비자 본인이 대출, 카드,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(신용정보원을 통해 차단정보 공유)하여 명의도용,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는 인프라

[배경]

- '24. 3월,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 개선 회의
- 비대면 금융사고, 명의도용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 소비자가 사전에 금융(여신) 거래 차단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

[조치사항]

<여신거래 안심차단('24.8월)>



<비대면 계좌개설(수신) 차단('25.3월)>



<서비스 기능 개선('25.5월)>

(대리인 신청, 대출한정 차단)



- * 신청자 수 ('25.12월말 누적)

: [여신거래 차단] 341.2만명,
[비대면 계좌개설 차단] 273.1만명